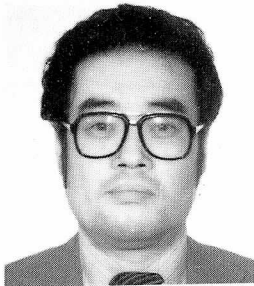


# 정보차단의 한가지 사례



柳 京 熙  
(한국데이터통신 연구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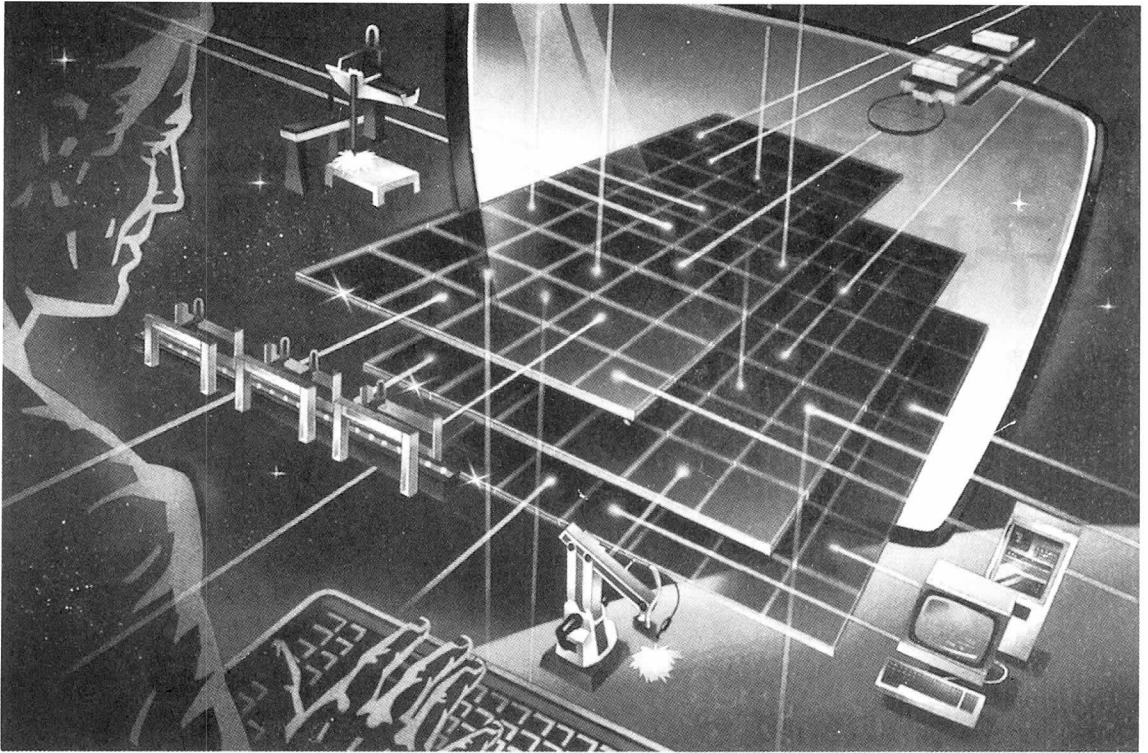
## 필 자

- ▲ 경북대 물리학과 졸업
- ▲ 성균관대 대학원 (전산) 석사
- ▲ 한국에너지연구소 연구관
- ▲ 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 전산실장
- ▲ 산업연구원 수석연구원
- ▲ 한국데이터통신 교육본부장
- ▲ 한국데이터통신 연구위원 (현)
- ▲ 동탑산업훈장 받음

나는 오래전부터 미국의 워싱턴 DC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The Source 라는 데이터뱅크에 가입하여 여러가지 재미있는 PC통신의 현황을 조사하여 왔다. 언젠가 이에 관한 자세한 논의를 할 것이지만 여기서 간략히 소개하면 우선 뉴스가 검색이 되고, 비행기나 호텔의 예약, 쇼핑이나 온라인주문, 직업찾기와 사람찾기, 백과사전, 증권투자 그밖에 수많은 응용분야가 적재되어 있다. 특히 이에 가입하지 않은 특정인 (주소, 성명)에게 바로 전보문을 보낼 수 있는 메일그램을 몇번 써보고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빨리 되어야겠다고 생각해 보았다. 전자편지 (메일)나 에디터등, 전자회의나 전자게시판, 또한 수백이나 되는 컴퓨터동호인 그룹등이 있어서 10만 가입자가 각각의 흥미로운 것을 매일 이용하고 있다. 실은 나도 여기에서 컴퓨터채팅(chatting)을 배우고 익혀서 수많은 사람과 손가락대화를 즐겨봤다. 이렇게 해서 친한 사람도 수십명은 되리라...

우리나라에도 채팅이란 말이 제법 일반화되어가고 있는데 글씨, 자랑은 아니지만 “채팅”이란 말을 우리나라에 퍼뜨린 첫번째 사람이 분명하다. 그런데 최근에는 채팅을 그만두었다. 국내의 채팅이라면 큰 문제는 없지만 국제채팅인 경우에는 통신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포기해버렸다.

한편, 나는 오래전부터 “전자신문”을 발간하여 수백명에게 매일 보내고 있는데 해마다 구독자가 늘어난다. 여기에는 “오늘의 이야기, 오늘의 역사, 오늘의 한국, 오늘이 생일인 사람, 오늘의 한마디” 등으로 구분해서 조사된 내용들을 모두 정리 입력해서 발송하는 일인데 요즘은 거의 일상화되어 버려서 과히 부담은 되지 않는다. 요는 많은 사람이 읽어주어서 다행이다. 이렇게 계속 한지가 벌써 3년째, 해마다 조금씩 데이터가 추가되어서 이제는 읽는데만 몇분이나 걸릴 정도. 오늘의 이야기는 일본에서 사온 책을 하루에 반페이지씩 번역해서 넣는 것이고, 오늘역사와 오늘이 생일인 사람 그리고 오늘의 한마디



는 주로 AP와 UPI에서 찾아 번역해서 집어넣는다. 알다시피 AP나 UPI는 유명한 뉴스제공사, 뉴스만이면 너무 딱딱하기 때문에 이런 잔 재미꺼리도 넣어서 나름대로 구독자를 늘리고 있다.

한동안 AP가 그런걸 하고 있는 줄 모르고 UPI만 했었는데 이것만으로도 「전자신문」감으로는 충분하다고 할 수 있었다. 다만 UPI를 보는 이유는 「오늘의 한마디」가 하나더 추가된다는 사실, 그런데 느닷없이 The Source에서 전자편지가 하나 왔다. 이걸 읽고 나니까 공연히 화가 치민다. 내용인즉은 소스에서는 1월 18일부터는 AP 서비스를 중단한다는 일방적 통고, 그제서야 지난 11월에 더 소스를 방문하였을때 부사장이 한 말이 기억난다. 「아마도 AP가 서비스를 중단할지 모른다」라고, 「왜 그렇지요?」라고 물으니까 AP기자의 말에 의하면 한국측의 계약자로부터의 항의 때문이란단다. 까짓것 있건 없건 별로 대스러운 일이 아니지만, 이러한 일이 즉, 정보를 차단한다는 일이 정보통신 진흥에 장애가 될 소지가 있어서 염려스럽다.

일본에서 에너지 쇼크때 유행된 말로 유단이란 말을 썼는데 이와 비슷하게 「정보의 단절」을 정단이라고 해서

매우 염려하는 논문을 읽은 기억도 난다. 그러니까 수틀리면 소스를 차단해버린다는 식이다. 만약에 이것이 국제적으로 번졌을때 정보가 없는 나라는 결국은 항복하고 말게 아닌가라는 염려의 글이었다. 그래서 그 결론은 나라에서 정보은행을 만들어서 차근차근 축적해 나가야 한다는 결론이었는데 이것이 이제는 절실한 상태가 되었다. 정보빈국 정도가 아니라 정보무국이라고 해야할 우리의 정보현실을 보아 어서 무언가 서둘지 않으면 안되는 시점에 왔다. 이미 늦었는지도 모른다. 우리의 정보는 우리 손으로 조속히 만들어 넣어서 외국인들에게 정보를 팔아 먹는 그러한 경지에까지 이르러야 한다.

매일 매일 해외의 데이터뱅크를 연결해서 국내의 정보를 찾아보고서 그날의 일을 구상해야 한다면 이게 가당키나 한 일인가? 국내의 어느 호텔의 숙박료를 확인하기 위하여 미국의 데이터뱅크를 열어보고 해야 하는가? 우리나라도 시급히 우리 고유의 데이터를 잘 정리하여 두는 노력을 하루라도 빨리 착수해야 한다. 이것은 어느 단 일기관에 한한 이야기가 아니다. 모든 기관 모든 사람이 자기가 수집관리하는 정보를 잘 유통되게 준비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